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4호 2026년 11월 13일 금요일



잘 나가는 K-라면
생산확대·해외거점
'양날개'
L1

HLB제약
자체생산 늘리고
신약 공급
L2



도심에 핀 '왕가의 정원'… 산수화 한 폭에 예술 입히다













❶ 팽나무와 현무암으로 꾸며진 '곶자왈원'. ❷ 프랑스 건축가 마크 포르네스의 조형물 '폴리올'이 설치된 '블라섬 가든' ❸ H네이처밸리 석가산. ❹ 서어나무 숲 '극림원'. ❺아트밸리에 위치한 박창식 작가의 설치조각. ❻영국왕립원예협회 정원박람회 수상작을 그대로 재현한 '가든 위스퍼스'. /현대건설, 안상미 기자

아파트의 미학(美學)

디에이치 방배

서울 지하철 4호선 이수역에서 7분가량 걸으면 방배동 언덕 위로 '디에이치 방배'가 모습을 드러낸다. 중앙 진입로에 들어서면 단지를 양쪽에 두고 바위산과 소나무가 길게 이어진다. 단지는 지난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올여름에 초록 잎을 달고 식재된 은행나무 아래로는 노란 낙엽이 쌓이고 있었다.

디에이치 방배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 일원에 방배5구역을 재건축해 들어섰다. 지상 33층, 29개 동, 총 3064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방배동 정비 사업지 가운데 가장 고층이다. 현대건설이 시공해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내건 7번째 단지다. 단지 앞 서초대로를 따라 강남업무지구(GBD)로 오가기 수월하고, 단지 아래로는 도구머리공원이 이어진다. 우면산과 관악산 자락이 가까워 녹지를 누리기도 좋은 입지다.

방배5구역 재건축… 총 3064세대 대단지
왕가의 정원 '로열 보태닉' 콘셉트 조경 조성
야외미술관 방불케 하는 예술작품 곳곳 배치

디에이치 방배의 조경은 야외 미술관을 떠오르게 한다. 현대건설의 하이엔드 조경 개념인 '현대미술관'에 왕가의 정원을 더한 '로열 보태닉' 콘셉트로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이 곳곳에 배치됐다. 중앙의 축을 따라 곧게 뻗은 '왕가의 길'을 중심으로 '왕가의 숲'과 '왕가의 정원'이 펼쳐진다.

왕가의 길은 디에이치 방배의 주요 공간과 일상의 동선을 연결하는 중심축이다. 단지를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두 녹지축 'H 네이처 밸리'와 'H 아트 밸리'로 이뤄졌다. 언덕 지형의 높낮이 차이는 그대로 살렸다. 녹지를 계단처럼 층층이 앉히고 물길을 위에서 아래로 흘려 보내 단지 안을 걷다 보면 오르막과 내리막을 따라 풍경이 조금씩 바뀐다.

H아트밸리는 십자형 녹지에서 세로축이라고 보면 된다. 계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중앙 진입로의 '워터 게이트'에서 시작해 '비스타 갤러리'를 지나 클럽하우스까지 이어지며, 축을 따라 수경시설과 미술작품이 차례로 놓였다. 워터 게이트는 '디에이치(THE H)' 로고가 걸린 구조물 아래로 물줄기가 떨어지는 공간이다. 비스타 갤러리의 계단식 낙수 시설 위에는 박창식 작가의 설치조각 '풍요-아퓨런드 드림(Opulent Dream)'이 자리했다. 솟아오른 물방울이 여러 갈래로 퍼지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으로 길이가 34m에 달한다. 축 끝 클럽하우스 앞에는 미러폰드를 두고 박선기 작가의 '큐브 타워'를 세웠다.

가로축이 협곡의 풍경을 담은 H네이처밸리다. A블록과 B블록 사이 진입도로를 따라 조성됐으며, 국내 최장 규모인 340m 석가산이 펼쳐진다.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모티브로 쌓은 석가산 사이에 폭포와 분수를 두고 금강송을 심었다. '산수화첩(山水畵帖)'이라고 이름이 붙은 구간이다. 두 블록 사이에는 덮개공원 'H 브릿지'를 놓아 도로로 나뉜 단지를 하나로 이었다.

왕가의 정원은 계절의 변화를 담은 풍경으로 주거동 사이와 산책길을 따라 이어진다. '가든 위스퍼스(Garden Whispers)'는 영국왕립원예협회 정원박람회 수상 작품을 그대로 재현했다. 가늘고 흰 기둥을 물결 모양으로 세우고 그 사이에 꽃과 풀, 나무를 심었다.

'옐로 큐브(Yellow Cube)'는 은행나무 24주를 사각형으로 둘러심은 정원이다. 안쪽에 의자를 두어 머물 수 있게 했고, 가을을 맞아 은행잎이 이미 노랗게 물들었다.

단지 가로지르는 십자형 두 녹지축 공간 구성
지형 특성 살려 계곡 재해석한 'H아트밸리'
국내 최장규모 석가산 펼쳐진 'H네이처밸리'
전국서 공수한 상징목에 국내외 작가 작품도

'시그니처 가든'으로는 공간마다 다른 재료와 형태, 식재를 담았다. 블라섬 가든에는 프랑스 건축가 마크 포르네스의 조형물 '폴리올(FOLIOLE), 2026'이 설치됐다. 알루미늄 부품 2155개를 리벳 6만850개로 엮은 쉘 구조물로 그의 작품이 국내 주거단지에 들어선 것은 처음이다. 밸리 가든은 고흥석을 켜켜이 세워 전통 석가산을 현대적으로 풀어냈고, 콜로네이드 가든에는 회랑형 퍼걸러가 열주처럼 늘어서 있다.

왕가의 숲은 전국 각지에서 공수한 상징목과 정원이 어우러진다. 상징목은 경주의 팽나무, 강릉의 소나무, 50년 넘게 자란 함양 살구나무, 높이 30m의 산청 메타세쿼이아 등이다. 제주에서는 팥배나무와 곰의말채나무, 팽나무, 신갈나무를 들여왔다. 서어나무 군락으로 숲을 이룬 '극림원', 팽나무 아래 현무암 사이로 계류가 흐르는 '곶자왈원', 너럭바위와 철평석을 놓은 '노송암석원', 계수나무 사이로 물길을 낸 '계수나루길'이 단지 곳곳에 자리했다.

정원 사이사이에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과 디자이너 가구가 놓였다. 어린이 놀이터는 호주 아티스트 듀오 크랙 앤 칼(Craig & Karl)과 협업해 원색과 기하학 패턴으로 꾸몄다. 캐나다 작가 안젤라 블록의 'Stack' 시리즈, 신타 탄트라의 'Light over Bangbae'도 주요 공간에 배치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 vs 96라인 갈등 일단락…"같은 목표 향해 나아갈 동료"
▲한국, APBC 첫 경기 호주에 7-8 석패…'6회 6득점'에도 역전패 /사진 뉴시스
▲오스틴, 외인 타자 역대 최고 연봉 200만 달러에 재계약…5년째 LG와 동행
▲임윤찬 '골드베르크 변주곡', 애플 뮤직 클래시컬 '올해의 앨범'
▲대중문화예술 제작스태프 대상, '개콘'·'왕사남' 등 10명
▲AI 시대, 국내 최대 융합예술 축제 '언폴드엑스' 열린다